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6년 5월 15일(금)
--(윤력 3월 29일)--
Пятница
15 мая 2026 г.
№ 19 (12186)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5월 15일은 세계 가정의 날이다.

(이예식 기자 촬영)

단신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 러시아 최초 기내식 운반 리프트차량 운행

이 리프트차량은 국산 '발다이 12'를 사용하여 조립된 러시아 최초 특수 리프트차량으로 하바롭스크에서 사할린으로 운송되어 새시 교체, 고도를 높이는 고정식 플랫폼 설치, 온도 변화, 강수에도 강한 내구성 있는 소재로 제작되었으며, 어떤 기후에서도 운행이 가능하다.

또한 음식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냉장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최첨단 제어시스템으로 주행이 자유롭고, 음식 적재량은 최대 600kg까지, 고도는 1.4m-5.8m까지 조절이 가능해 다양한 항공기종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로써 기내식을 항공기에 적재하는 데 드는 시간이 단축되어 서비스품질의 수준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쿠나쉬르섬에 이름 없는 봉우리, 극동의 학자들의 이름으로

사할린의 지형지물에 저명한 인물들의 이름을 가져오는 작업을 하는 중 과학자들을 기리기 위한 계획을 진행하는 가운데 쿠나쉬르섬 북동쪽 이름 없는 산봉우리에 극동지역의 지질학자, 지구물리학자, 지진활동 연구에 헌신한 저명한 소련 및 러시아 과학자들의 이름을 붙일 계획이다. 그중 보리스 피스쿠노브(1937-2017)는 지질광물학 박사로서 극동지역의 지질학과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지질조사, 화산활동을 연구했다.

콘스탄틴 세르게예브(1931-2010)는 지구물리학 및 지구화학자이며, 25년간 유즈노사할린스크 해양 지질, 지구물리학자로 활동, 쿠릴열도와 오토츠크해 지역의 지질구조 연구, 호상열도의 지각변동, 화산활동, 층서학에 대한 연구서를 저술했다.

세르게이 솔로비예브(1930-1994)는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회원이며, 지구물리학자로서 지진과 쓰나미를 연구해 그 강도와 척도를 개발, 소련 최초 태평양 쓰나미 목록을 편찬했다.

<간호사 - 나의 소명>경연에서 우수 간호사 선발

세계 간호사의 날을 맞아 5월 12일 사할린에서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보건부와 지역 의료인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간호사 - 나의 소명> 우수 경력 경연대회가 개최되어 13개 의료기관에서 16명이 참가해 경연을 치르고 8명이 결승에 진출해 재할, 수술실 및 병동간호조직, 영양관리, 환자의 디지털 활용 능력, 치과 예방조치 부문에서 실력을 발휘했다. 또한 참가자들의 소통 능력도 평가된 가운데 <재할치료 조력 조직에서 간호사의 역할>이란 실습활동으로 사할린주 중앙병원의 예브게니야 쿠이모와가 1등을 차지했다.

존경하는 사할린과 쿠릴열도 주민 여러분

5월 15일은 사할린 북부를 러시아가 수복한 날입니다. 1925년 5월 15일에 사할린의 역사와 국가 전체의 역사에 길이 남을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바로 북부 사할린이 러시아로 반환된 것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과 국내 치열한 내전 후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더욱이 국제사회의 적대적인 분위기는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신생 소련 외교는 주요 강대국 간의 긴장을 이용해 일본의 북부 사할린 점령을 종식시키고, 러시아 선원들이 탐사하고, 우리 선조들이 정착했던 이 땅을 러시아가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20년이 흘러 1945년 소비에트 장병들은 손에 무기를 들고 결정적으로 역사의 정의를 회복시키고자 남부 사할린과 쿠릴열도까지 러시아에 귀속시켰습니다. 그리고 곧 현재 경계가 구축된 사할린주가 형성되었습니다.

사할린주는 이제 우리 공동의 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의 위대한 조국의 번영을 위해 우리 선조들이 이룬 업적과 공동의 노력에 대한 기억은 사할린과 우리를 더욱 굳건하게 결속시키고 있습니다. 사할린 동포 여러분, 북부 사할린 수복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주지사

아니와 지역에 현대적 하수처리시설 가동

지난 5월 13일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아니와 지역을 실무차 방문하여 현대적 하수처리시설 가동 상황을 점검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36년까지 러시아 각 행정자치지역들은 정화되지 않고 하수시설로 버려지는 폐수의 양을 2배로 줄여야 한다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아니와 지역에서 중요한 공공시설의 공정기술이 시작된 가운데 아니와 지역에 여러 공공제반시설들을 즉시 건설하기 시작했다. 2025년 말에는 타라나이 마을에 하수처리시설이 건설되었고, 이와 같은 시설이 아니와에도 건설되었으며, 노위트로이츠코예 구역에서는 건설 중이다.

주지사는 "향후 아니와 해안에 깨끗한 물이 흐르는 휴양지가 조성될 전망이 있어 우리는 하수가 아니와만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줄 하수처리시설 단지를 건설하여 환경보호적 번영에 크게 기여하고, 우리 주민들을 보호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니와 지역에 하수처리시설은 2023년 12월 사할린주 정부와 아니와 지역 행정부, '로스워드카날'회사 그룹 간에 체결된 양허계약(민간투자사업 계약)에 따라 추진되었다.

하수처리시설은 기계적, 생물학적 하수정화

처리를 한다. 하수처리시설 건설 후에는 물의 탁도가 확연히 낮아지고, 수중 중금속 유입이 차단되며, 강의 수중생물에 악영향을 주는 질소암모늄의 배출량도 40배로 감소될 전망이다.

새로운 공공제반시설은 생활하수만 처리할 뿐 아니라 중앙 하수시스템과 연결되지 않고 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오수를 받아들이는 현대적 배수처리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

'로스워드카날' 수도국의 안드레이 브로츠만 운영국장은 "현재 우리는 생산기업 및 분노 수거차량에서 나오는 오수를 받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트로이츠코예, 노위트로이츠코예 마을을 방문해 이곳 주택 구역에서 특히 주민들이 물을 많이 사용하는 시간대에 수압이 아주 약해진다는 민원이 있어서 간선 수도망의 수압을 조절하는 정수장을 방문해 점검했다.

지난해 말 트로이츠코예 마을 취수장에는 추가로 취수시설이 설치되었고, 정상 급수를 공급하기 위해 감압기를 설치했다. 최근에는 최적의 수돗물 공급을 구축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며, 향후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추가로 정수 저장탱크를 건설할 계획이다.

새고려신문

2026년 하반기 신문 구독 시작!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6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6개월 구독료는 885,96 루블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5월 18일은 '세계 박물관의 날'이다. 이날은 국제 박물관협회(ICOM)가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1977년에 제정했다. 현재 사할린의 여러 박물관에는 적지 않은 사할린 한인동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 중에는 사할린 한인사와 한민족의 문화·예술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보급하는 이들이 있다. 본지에서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다룬 적이 있으나, 오늘날까지도 이 방면에서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들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자 한다.

사할린주 향토박물관 김영희 선임연구원

1956년생인 김영희(러시아명 이리나 보리소브나) 씨는 사할린 한인 2세대. 극동국립대학교에서 러시아어와 문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후 연해주 지역의 여러 기관에서 근무했다. 연해주에서의 마지막 직장이 박물관이었던 인연으로, 1986년 가족과 함께 사할린으로 돌아온 김영희 씨는

세계 박물관의 날 맞아

박물관에서 사할린 한인동포의



가장 먼저 사할린주 향토박물관의 문을 두드렸다. 당시 블라디슬라브 라티셰브 관장과 면담에서 관장은 그녀에게 박물관 내에서 사할린 한인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때는 1986년으로, 사할린은 물론 러시아 전역을 통틀어 그 누구도 이와 관련된 연구를 시작하지 않았던 시점이었다. 민족학 전문가로서 김영희 씨는 지방 출장을 마다하지 않고 사할린 한인의 역사 및 삶과 관련된 유물들을 수집하고 동포어르신 인터뷰도 따냈다. 이듬해

인 1987년에는 사할린 한인사를 주제로 하는 첫 전시회를 개최했으며, 현지의 반응은 매우 뜨거웠다. 1980년대 말까지 그녀는 방대한 연구를 수행했고, 시민들이 기증한 물품들을 박물관의 공식 소장품으로 등록시켰다.

1990년대 초, 여러 개인적 사정으로 박물관을 떠나게 된 그녀는 24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뒤에야 다시 박물관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유감스럽게도 그 공백기 동안 박물관 내에서 이 주제를 연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기존의 많은 소장품이 분실되기도 했다. 처음에 소장품 관리자로 임시 복귀했던 김영희 씨는 어느덧 14년째 박물관에서 근무 중이다. 그동안 그녀는 사할린 한인 소장품 컬렉션 도록을 출판했고, 여러 세미나와 학술대회에 참가해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2024년에는 향토박물관의 '사할린 한인' 상설 전시관 개관 준비

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다큐멘터리 '토박이'에 민족학자로 출연해 전문적인 해설로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작년부터 선임연구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그녀는 지역 사회에서 한인 관련 계몽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 현재 '사할린 한인' 텔레그램 채널과 '막스(Max)' 채널의 공식 필자로서 사할린 한인의 역사, 삶, 문화에 관한 흥미로운 글을 게재하고 있으며, 사할린 한인 문화를 소개하는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사할린주 미술박물관 하이 옥자 수석연구원

사할린주 미술박물관의 하이 옥자(러시아명 올가 니콜라예브나) 수석연구원 역시 사할린 한인 2세대. 1962년 코르사코브 출신인 그녀는 유즈노사할린스크 국립사범대학(현 사할린국립대) 러시아어·문학과를 졸업하고 교사로 재직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항상 주미술박물관



에서 일하고 싶다는 꿈을 품고 있었다. 평소 동양권 문화와 예술에 관심이 많았던 그녀는 마침내 1990년부터 사할린주 미술박물관에 몸담게 되었다. 학술계몽부서에서 첫걸음을 땀 5년 뒤 학술 전시부서로 자리를 옮겨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다. 하이 옥자 씨의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한민족 예술을 다루는 상설전시관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노력 끝에 1999년 주미술박물관 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현대 미술 상설전

시관이 문을 열었다. 수년 전부터는 이 전시관에는 북조선 작품뿐만 아니라 한국의 작품들까지 함께 어우러져 전시되고 있다.

한민족의 문화예술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 하이 옥자 수석연구원은 사할린한인여성회, 사할린주한인협회 등 동포 단체는 물론 사할린한 국교육원, 주유즈노사할린스크 대한민국 영사출장소 등이 공동 추진하는 다양한 한민족 문화 축제에 예술 전문가로 적극 참여해 왔다. 특히 그녀가 직접 전시, 문화프로그램, 한복패션쇼 등을 기획하고 추진했던 첫 '한국의 열풍' 문화 축제는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또한 그녀는 극동 지역 국가(한국, 북한, 중국, 일본 등)의 예술 전문가로서 주 미술박물관에서 다양한 전시를 이끌어왔다. 사할린 한인 단체 회원들을 위해 특별전시 견학 투어를 여러 차례 개최하기도 했다.

이 모 저 모

사할린의 치어리더들, 러시아 선수권 및 챔피언대회에서 7개 메달 획득

치어리딩 스포츠 주간의 일환으로 모스크바에서 열린 러시아 치어리딩 선수권 및 챔피언 대회에 연방 차원에서 사할린주의 치어리더들이 대표로 출전해 금메달 1개, 은메달 4개,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고 사할린주 스포츠부가 전했다.

이번 대회에 전국 54개 지역들에서 5,939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여 치열한 경쟁을 치른 가운데 사할린팀은 종합 순위에서 9위를 차지했다. 러시아 치어리딩 선수권대회는 2026년 치어리딩 종목의 주요 행사였다.

〈합합더블 치어리딩〉 종목에서 사할린의 올리아나 폴레스니크와 알레리아 샤로이키나 선수가 금메달을, 밀레나 지라노와 아나스타시야 바라노와 선수가 은메달을, 알리사 코슈키나와 예와 자볼로트나야 선수가 〈재즈더블 치어리딩〉 종목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사할린의 치어리더팀들 모두 상을 수상하여 단체전 〈합합 치어리딩〉 종목에서 은메달 차지, 〈재즈 치어리딩〉과 〈합합 치어리딩〉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경기 결과 19명의 사할린 치어리더 선수들이 스포츠 장인 후보 칭호를 받았으며, 두 명의 선수는 표준 스포츠 장인 자격을 얻었다.

Сахалинские чир-спортсменки завоевали 7 медалей на чемпионате и первенстве России

Чир-спортсменки достойно представили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на федеральном уровне, выступив на чемпионате и первенстве России. Соревнования прошли в Москве в рамках Чир Спортивной недели. Островная команда завоевала одну золотую, четыре серебряные и две бронзовые медали,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спорта. Островитянки заняли девятое место в общекомандном зачете. При этом конкуренция у них была нешуточная: турнир собрал 5939 атлетов из 54 регионов. Таким образом первенство России стало главным событием 2026 года в этой дисциплине. Золото в дисциплине «чир хип-хоп двойка» выиграли Ульяна Колесник и Валерия Шаройкина. Серебро в этой же категории взяли Милена Зырянова и Анастасия Баранова. Еще одну серебряную награду завоевали Алиса Кошкина и Ева Заболотная в «чир джаз двойках».

В командных дисциплинах сахалинки тоже попали в число призеров. Вторые места заняли в нескольких

групповых дисциплинах хип-хопа, а бронзу — в направлениях «чир джаз группа» и в «чир хип-хоп группа».

По итогам соревнований 19 сахалинцам присвоят звание кандидата в мастера спорта. Еще двое атлетов выполнили норматив мастера спорта.

5월 9일 코르사코브에서 <한 사람의 기억은 국민의 기억으로 남다> 음악공연 개최

5월 9일 전승절을 맞아 코르사코브에서 기념일을 마무리하는 활기찬 저녁 프로그램에 어린 학생들부터 성인세대의 대표들까지 이 지역 주민 수십 명이 참석했다.

1시간 30분간 시청 광장은 〈한 사람의 기억은 국민의 기억으로 남다〉라는 주제로 뮤지컬 공연을 위한 무대가 되었다. 뮤지컬은 1941년 여름, 학교 졸업생들이 졸업식 이후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전선으로 향하는 데서 시작했다. 공연은 대조국전쟁의 연대기를 다루어 관객들에게는 독자적인 역사 수업이 되었고, 조국의 위대한 승리를 위해 소비에트의 국민이 얼마나 전력을 다하고, 목숨을 바쳤는지 다시 일깨워주었다.

공연은 '오케아나'극장의 감독 표도르 포르투치코브가 감독했다. 뮤지컬 내용은 레닌그라드 봉쇄, 나치 포로수용소의 참상, 스탈린그라드 전투, 베를린 함락 등 당시 주요 역사적 사건을 다루고, 공장들과 들판에서 〈빵을 위한 전쟁〉이 벌어졌던 힘든 후방 노동전선의 공적도 놓치지 않고 표현했다.

어린이와 청년으로 구성된 합창단을 중심으로 공연이 펼쳐지면서 노인자원봉사단을 비롯한 민요 앙상블의 대표들과 다양한 연령의 가수들을 포함해 백 명 이상이 배역을 해냈다. 코르사코브 중심 광장에서 열린 뮤지컬의 모든 요소들은 완벽한 조화를 이뤘고, 대규모 공연에 웅장한 음향, 재능있는 가수들, 특수효과들로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다. 정교한 인공기능 프로그램을 통해 무대 배경 화면에서는 역사 기록물들이 살아나고, 제철소가 가동되며, 당시 기차가 움직이고, 전투가 벌어지는 전선이 생생히 살아났다.

공연에서 가장 감동을 준 곡목으로는 오래된 전쟁 기록물 장면에서 전사한 자신의 아들을 알아본 여인에 대한 〈어머니를 위한 발라드〉 노래가 가슴을 저며왔다.

특히 공연 중간에 당시의 시들을 낭송하기도 했다.

전쟁시절의 역경을 모두 보여주고, 정서를 함께 나누는 후 마지막 승리를 위한 〈승리의 날〉 노래가 울려 퍼지자 관객들은 강한 연대감과 엄숙하고도 강렬한 감정에 휩싸여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고 일어났다.

이후 몇 분간 항구도시의 밤하늘을 수놓은 불꽃놀이는 이러한 정서를 더욱 고조시켰다

«Из памяти каждого складывается память народа»: 9 мая в Корсакове показали музыкальный спектакль

Празднование 9 Мая в Корсакове завершилось яркой вечерней программой, в которой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десятки жителей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округа — от юных школьников до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На полтора часа городская площадь превратилась в настоящую сцену для театрально-музыкального спектакля «Из памяти каждого складывается память народа». Его действие началось летом 1941 года — со школьного выпускного, после которого вчерашние ученики отправились на фронт защищать Родину. Спектакль охватил хронологию всей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став своеобразным уроком истории для зрителей. Он напомнил, сколько сил и жизней положил советский народ ради Великой Победы. Режиссером постановки выступил директор «Океана» Федор Порутчиков.

Сюжет затронул знаковые вехи тех лет: блокаду Ленинграда, ужасы концлагерей, Сталинградскую битву, взятие Берлина. Не обошли вниманием и подвиги тыла — тяжелый труд на заводах и в полях, где разворачивалась «битва за хлеб».

В постановке задействовали более сотни участников, в том числе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движения «серебряных» волонтеров, ансамбль народной песни, солистов разных возрастов. Основу артистического коллектива составили дети — от малышей до подростков. Все элементы спектакля, показанного на главной площади Корсакова, сработали идеально. Зрителей впечатлили массовость постановки, великолепный живой звук, талантливые вокалисты и даже спецэффекты. В качестве задника сцены служил экран, где благодаря грамотной работе с нейросетями ожили хроники, металлургические заводы, поезда и места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Самым трогательным номером стала «Баллада о матери» — пронзительное произведение о женщине, узнавшей своего погибшего сына в кадрах старой военной хроники.

Примечательно, что в спектакле звучали и стихи тех лет. После всех показанных тягот военного времени и пережитых вместе эмоций финальный победный аккорд — песня «День Победы» — вызвала сильнейшие эмоции. Люди на трибунах вставали с мест, не в силах сидеть, — таким сильным было чувство сопричастности и торжественности. Это ощущение усилил праздничный салют, который сверкал в небе над портовым городом на протяжении нескольких минут.

(8면에 계속)

세계 박물관의 날 맞아

역사와 문화를 지키는 사람들

이외에도 세계한민족 여성네트워크(KOWIN) 사할린 지부 임원으로 활동 중이며, 사할린국립대 동양학과 학생들에게 동양 예술을 가르치고 있다. 뛰어난 리더십과 풍부한 아이디어를 지닌 인물로 지역 사회에 잘 알려져 있다. 하이 옥자 수석연구원은 한민족 문화예술을 널리 알리는 '문화 계몽의 전도사'라 할 수 있다. 예술은 물론 민족전통과 풍습, 문화적 상식에 해박하며, 가족의 역사와 소중함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는 인물이다. 현재 그녀는 '사할린 한인' 텔레그램 채널과 '막스(Max)' 채널의 공식 필자로서 주미술 박물관이 소장한 귀한 작품들을 지속해서 대중에게 소개하고 있다.

16일(토) 진행되는 '박물관에서의 밤' 행사 중에 그녀가 기획한 한민족 문

화와 관련 활동교실과 민족놀이도 진행할 예정이다. **사할린주향토박물관 진 울리아 학술연구 담당 부관장** 사할린주향토박물관의 진 울리아(진 울리아 이와노브나, 46세) 학술연구 담당 부관장의 어머니는 사할린 한인 2세이며, 아버지는 러시아인이다. 사할린국립대학교 역사학과를 통신과정으로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학 박사과정에도 도전해 당당히 합격했다. 한국 고려대학교에서 역사학 석사 학위를 마쳤고, 2016년에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역사학 박사(PhD, 러시아 학위 기준 준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녀는 사할린 한인사를 이미 18년째 연구해 오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다수의 연구 서적과 논문을 출판했다. 연구자로서 러



아, 한국, 일본, 중국 등 수많은 국제 학술대회에서 발표자로 활약했으며, 촉망받는 소장 학자로서 수상의 영예를 안기도 했다. 박물관에는 2018년부터 근무하기 시작했고, 학술편집부장을 역임하고 그녀는 능력을 인정받아 2024년 12월부터 부관장으로 정직 취임했다. 그녀는 항상 동시에 여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열정적인 연구자로 통한다. 연구 초기에는 한국과 사할린 현지를 오

가며 사할린 동포 1세대들을 직접 만나 많은 구술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다. 특히 1945년 8월 해방전에 사할린에서 발생한 일본인에 의한 '조선인 학살 사건'의 기밀문서 해제에 관해서는, 보안국(FSB) 소장의 관련 자료들이 박물관 등 공공 연구기관으로 이관되도록 한 것은 진 울리아 부관장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녀는 이 귀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사할린 현지 주민들 앞에서 연구 성과를 발표했으며, 한국에서도 관련 특강을 진행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녀가 일궈낸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2024년 문을 연 사할린주향토박물관 내 '사할린 한인' 상설 전시관이다. 그녀는 총괄 담당자로서 초기 기획부

터 전시실 내부 구성 및 세부 연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직접 도맡아 완성했다. 진 울리아 부관장은 "박물관 업무의 가장 큰 매력은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늘 새로운 과제가 생겨난다는 점"이라며 "이를 위해 항상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익혀야 하는 환경이 매우 마음에 든다."고 전했다. 현재 '사할린 한인' 텔레그램 채널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그녀는 사할린 한인사회와 관련된 주제들을 항상 가슴 깊이 고민하며,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박물관은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공간이다. 사할린의 역사와 예술 속에서 한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 밤낮으로 매진하는 이들이 있기에, 사할린 동포 사회의 역사적 뿌리는 더욱 단단해지고 있다.

(배순신 기자)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꽃 / 김준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러시아는 누가 뭐래도 푸쉬킨의 나라지요. 시인의 나라. 물론 저야 체홉과 도스토예프스키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다시 이 양반들의 책을 펼쳐 드는 광적인 팬입니다만, 어찌 푸쉬킨의 업적을 이들 뒤로 내려놓을 수



을까요? 말 안되는 소리인 거죠. 제가 시인을 신비롭게 바라보며 존중하는 이유일 텐데요. 어쩌면 제 언어의 한계가 바로 이 '시'에 있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눈치채셨겠지만, 전 그러니까, 목소리 좋은 미남(?) 스타일의 중년을 맞은 극작가인 건 분명하겠지만, 그러니까, 예, 모, 뭐, 맞아요, 말 좀 많은 편! 아니 그냥 주구장창 많은 편 맞아요, ㅋ.

어느새 사랑의 계절 5월!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지나고, 이제 5월의 중심, 스승의 날을 맞이합니다.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의 예전 교육 풍경은 찾아보기 힘들어졌겠지만 말이지요. 아쉽게도 언젠가부터 대한민국의 학교는 어느새 평가기관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관용이 있어야 할 자리에 평가가 스승 자리에 앉아버린 경우겠지요. 학생들이 인권부터 요구하는 요구자로 돌변해버린 이유일 테고, 학부모들은 뭐 말 다했죠. 믿지 못할 만큼 요구가 많아져 버렸습니다. 이제 AI마저 지식의 기틀을 뒤흔들고 있으니, 세상의 질서는 무너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결국 성실하고,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봐 주시던 옛 어른들의 보살핌마저 사라지고 말 텐데요. 철학의 부재, 그런 시간이 미친듯이 질주하며 우리에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결국 셸럽이 되어야만 이를 활용해 관심 얻고, 뭘 하든 광고를 붙여가며 돈을 버는 신세계에 접어들 거지요. 근면 성실하라고 그렇게 소리치더니, 이제 와선 제일 먼저 그런 분들에게 AI의 대체자가 될 수 있으니, 서둘러 AI의 모든 기능을 섭렵, 신사업을 창출하라는 세상입니다. 나 원 참. 성실하지 않았던 삶을 산 제가 봐도 근래 일상의 변화는 심각함을 넘어섰지요.

일단 '관계'에 대한 철학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꽃'으로 바라봐 주셔야 합니다. 학생들도 선생님을 그렇게, 응. AI는 말만 번지르해요. 힘드시겠지만 선생님들께서 다시 일어나셔야 대한민국은 산다고 봅니다. 애들 다시 혼쫌도 내주시고, 권위 되찾으셔야죠. 저처럼, 선생님의 칭찬 한마디로 평생을 희망차게 살 수 있도록, 다시 질서가 잡혀야지요. 그런 날이, 그런 소년이 많아지기를 희망합니다. 세상 모든 선생님들께 새삼 고마움을 표합니다."

(서울에서 허진원)

사할린 한인단체 소식

전승절과 어버이날을 기념하며

5월 8일은 한국에서 크게 어버이날로 기념하고, 5월 9일은 러시아에서 가장 애국적인 기념일인 대조국전쟁 전승일로 기념하는데 사할린한인들은 이 두 날의 중요한 명절을 잘 지키고 있다.

사할린주한인협회(회장 박순옥)는 5월 8일 어버이날에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1세대 한인동포 60명을 모시고 맛있는 점심식사를 대접했다. 이날 참석자들에게 사할린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과 사할린한국교육원 박수식 회장이 따뜻한 축하인사를 전했다.

또한 5월 9일은 사할린주한인협회의 지도부와 활동가들은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진행된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가했다.

사할린한인연합회(회장 고영순)는 5월 9일 어버이날 행사 겸 대조국전쟁 81주년 전승 기념행사에 140여 명을 모시고 행사를 열었다. 행사는 야외 레스토랑 '루스코에 바로코'에서 열렸으며, 명절 준비는 연합회의 청년부와 자원봉사자들이 도왔다.

이날 참석자들 대부분이 70세 이상이었고, 그들을 위해 카네이션과 게오르기 리본을 준비하여 젊은이들이 진심 어린 축하를 전하며 리본을 달아주며, 큰절을 올렸다.

또한 청년부는 이날 종이연꽃 만들기 활동교실도 진행하였다. 이날 연합회의 남성회원들은 직접 샤슬릭(고기 꼬치 구이)을 구웠고, 맛있는 우하(러시아식 생선탕)를 끓였다. 참석자들은 맛있는 요리를 즐기며,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즐거움을 함께 했다.

5월 9일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회(회장 림중환)의 한인회 활동



사할린주한인협회 제공



사할린한인연합회 제공

가들은 우선 영예광장 불멸의 성화에 헌화를 한 다음 시한인회가 운영하는 노인정 모임을 찾아갔다.

이날 전통적으로 노인정 어르신들 위주로 5월 9일(토)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가졌다. 시한인회 소속 새로운 무용단이 데뷔 춤을 선보이고, 무엇보다 어린이들의 축하가 할머니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였다.

여성들이 정성껏 차려놓은 밥상과 더불어 할머니들이 직접 가져온 반찬과 음식, 시한인회에서 준비한 금일봉과 춤과 노래 속에 보낸 소중한 시간은 어르신들에게 명절 분위기를 한껏 안겨주었다.

(본사 기자)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제공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Рождение легенды»: 30 лет корейскому отделению школы «ЭТНОС»

Методическому объединению «Корейское национальное искусство» ДШИ «Этнос» — 30 лет. Это 30 лет огромного труда, многочисленных побед и наград, высокого профессионализма, огромной любви и верности своей профессии, своему делу. Школа «Этнос» — уже сахалинский бренд. Школа, которая стала вторым домом для многочисленных учеников и педагогов. На корейском отделении есть педагоги, которые работают практически с самого начала основания этого методобъединения, и те, кто присоединился чуть позже. Уже один тот факт, что из девяти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отделения четверо — бывшие ученики школы, говорит об очень многом.

Преподавательский состав объединения во главе с руководителем Юлией Син всегда поражает интересными задумками своих отчётных концертов. Концерты, прошедшие в киноконцертном зале «Октябрь» город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6 и 13 мая при полном аншлаге, вновь поразили зрителей масштабностью, зрелищностью, профессионализмом и невероятной любовью к тому, что творилось на сцене.

Юбилейный концерт получил имя «Рождение легенды» — и оно полностью оправдало себя. Зрителей ждал не просто сборник номеров, а цельное эпическое действо, основанное на корейском эпосе о четырёх стражах мира: Белом тигре — Бэхо (запад), Чёрной черепахе — Хёнму (север), Лазурном драконе — Чонрён (восток) и Красной птице — Фениксе Чуджак (юг). Когда равновесие оказалось под угрозой, только вместе они смогли объединить силу земли, мудрость воды, свободу воздуха и страсть огня, чтобы создать нерушимый щит от тьмы, защитить мир от хаоса и несправедливости.

Представление длилось чуть меньше часа, но без единой паузы. Секрет — в синтезе живого выступления и видеоряда. На большом экране демонстрировался фильм: закадровый голос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вёл легенду, а на экране шли субтитры на корейском. На сцене тем временем разворачивалась магия: пели на корейском, танцевали традиционные корейские и современные танцы, звучали каягым и дансо, играли на больших и маленьких барабанах. Гул больших барабанов бук проходил сквозь зал, вызывая мурашки...

Особый визуальный акцент — куклы-мляжи четырёх животных-стражей, которые появлялись в ключевые моменты повествования. Они словно оживали, подчёркивая мифологическую глубину сюжета.

Главным режиссёром-постановщиком выступила заведующая корейским отделением Син Юлия Енчеровна, а сценарий создавали всем коллективом преподаватели: Евгения Ким, Наталья Чео, Че Гён-



сун, Ким Вансун, Анна Ким, Анна Кан, Мията Мисун. Им удалось невозможное — за короткое время погрузить зал в мир, где переплелись сезоны и цвета, суровость севера и жар юга, мудрость воды и свобода воздуха.

Одна из зрительниц призналась: «Смотрела на одном дыхании, барабанная дробь пробивала до мурашек. Слезы потекли не от грусти, а от восторга, от гордости за такой талант, за нашу культуру. За то, что это всё живёт и гремит на всю страну. Отдельное спасибо тем, кто за кулисами — преподавателям и руководителям. Они воспитали чудо. Низкий им поклон».

Три десятилетия — срок, когда традиция перерастает в легенду. В зале «Октябрь» это почувствовал каждый.

Виктория Бя.
Фото Ли Е Сика.

В Москве прошел юбилейный концерт Аниты Цой

11 мая 2026 года в эфире российск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телеканала «НТВ» прошла трансляция музыкального шоу Аниты Цой «Крылья».

Концерт, посвященный юбилею народной артистки России Аниты Цой и 30-летию ее твор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прошел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Кремлёвском дворце в Москве. На сцене Кремлёвского дворца певица исполнила свои самые популярные песни: «Полёт», «Небо», «На

Восток», «Береги меня», «Сумасшедшее счастье».

В юбилейном концерт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звезды российской эстрады Григорий Лепс, Диана Арбенина, Денис Клявер, Дмитрий Колдун, Люся Чеботина, Диана Гурцкая, Зара и др.

Одним из ярких моментов этого концерта стало исполнение песни «Поздно» Аниты Цой в дуэте с Анатолием Цоем.

(<https://t.me/saramkor>)

Предлагаем Вашему вниманию очерк Николая Долгополова о легендарном разведчике, Герое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Евгении Ивановиче Киме.

Жизнь в триумфах и трагедиях. Евгений Иванович Ким (1932-1998)

Николай ДОЛГОПОЛОВ

В 2024 году в издательстве «Молодая гвардия», в серии ЖЗЛ, вышла книга писателя, журналиста, трижды лауреата литературной премии Службы внешней разведки России Николая Долгополова «Легендарные разведчики-4». Издание содержит ряд биографических очерков ранее неизвестных сотрудников советских спецслужб: Владимира Лохова, Бориса Прибыткова, Марии Добровой, Артура Адамса и др. Очерк «Жизнь в триумфах и трагедиях» посвящен Герою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Евгению Ивановичу Киму (1932-1998).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это единственная официальная биография легендарного разведчика.

В этой главе нашей книги впервые приведена подробная биография разведчика-нелегала Евгения Ивановича Кима. Рассказано и о его работе в стране, у которой пока нет названия.

Он не должен был стать разведчиком и уж тем более советским нелегалом. Он вообще не должен был оказаться в нашей стране. Он начал свою жизнь в «особых условиях» с такого круглого нуля, что о головокружительной карьере, им самим и сделанной, нельзя было даже мечтать. Он добывал секреты, обходя немыслимые кордоны. Он стал, редчайшая честь, Героем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И человеком, чей семейный очаг был разрушен нескончаемо долгим его отсутствием. И отцом трагически погибшего единственного сына. И нелегалом, преодолевшим все, что только можно преодолеть там. И закончившим жизнь под шальными колесами случайного автомобиля здесь, в нескольких шагах от родного московского дома.

Все это о полковнике-нелегале Киме, фантастически удачливом разведчике и глубоко несчастном в личной жизни человеке. Триумфы и трагедии одного из символов нашей нелегальной разведки сплелись в клубок из оборванных нитей, не имеющих ни начала, ни конца.

Суровые профессионалы, вручившие мне относительно подробные выдержки из спецдосье, уверены: чудо уже то что о Евгении Ивановиче Киме можно вообще рассказывать. Даже опуская немыслимые, лишь нескольким людям разведки известные подробности его оперативной работы. Как и некоторые важные детали биографии, типа страны где десятилетиями действовал советский нелегал.

Исключительно благодарен и пиетерскому исследователю Вячеславу Геннадьевичу Калганову.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уже несколько лет во многом его благородными и бескорыстными стараниями регулярно проходят встречи, семинары (называйте, как хотите), посвященные жизни наших разведчиков, ушедших давно и недавно. Приглашаются их родственники и коллеги. Литераторы, пишущие о спецслужбах. Студенты институтов, интересующиеся сложной темой.

На одной из таких встреч Вячеслав Геннадьевич щедро поделился подробностями о детстве и юности будущего Героя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Использую в этой главе всю информацию, а когда она порой не совпадает с официальными данными, то привожу две точки зрения, ни в коем случае их между собой не сталкивая.

Ким — это фамилия, а Ен Чер — настоящее имя — родился 27 февраля 1932 года в уезде Кочхан в провинции Кёнсан-Намдо, что относится сейчас к Южной Корее. В 1978 году решил поменять имя на более привычное русскому уху — Евгений Иванович. Он седьмой и



Герой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Евгений Иванович Ким (1932-1998)

младший ребенок в многодетной — шестеро сыновей и дочь — корейской семье.

Отец — зажиточный крестьянин и торговец. Его грузовики доставляли рис в порт Пусан, а оттуда груженные корабли шли в Японию, которая аннексировала Корею еще в 1910 году. Торговля у Кима-старшего шла настолько неплохо, что он мог позволить себе иметь кроме жены и официальную наложницу, которая родила от него детей.

Об определенной зажиточности семьи свидетельствовала и религиозная принадлежность. Все шестеро братьев и сестра были крещены католиками еще при рождении в Корее.

Но относительное благополучие было нарушено, когда отец в 39 лет заболел. Пустяковая болячка оказалась смертельной. Дело было передано, как и принято, старшему из шести братьев и очень скоро рухнуло. Всем членам совсем недавно еще довольно состоятельной семьи пришлось взяться за работу. Совсем трудно бы пришлось, если бы груз забот на первых порах не взяла на себя мама — умная, трудолюбивая, самоотверженная.

В довоенные годы в Корее образование для детей бедняков заканчивалось на начальной школе. Ким пошел туда с семи лет и должен был бы через четыре года покинуть школу. Однако вся семья решила, что младшему надо обязательно продолжить учебу. Ким Ен Чер отличался не только прилежанием, чем в его стране было никого не удивить, но и явными способностями, а в изучении языков — и талантом. Да еще губкой впитывал все то хорошее, что веками развивалось в древней культуре Юг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Один из братьев уехал на заработки в Маньчжурию, в 1932 году оккупированную Японией. Оттуда быстро перебрался в Токио, где стал таксистом. Быстрый, активный, не боящийся перемены мест, он, чем мог, помогал семье. Но был призван в армию. Выбрал альтернативную службу. А это значило, что работа предстояла ему тяжелой.

Источник: Долгополов Н.М. Легендарные разведчики-4. М., 2024. С. 93-113. — (Жизнь замечательных людей: сер. биогр.; вып. 2003).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мобилизует все силы для контроля над ценами

Рост мировых цен на нефть стимулирует рост потребительских цен. Об этом заявил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РК Ким Мин Сок, выступая 13 мая на экономическом совещании в Сеуле. Он поручил министерству финансов и экономики и другим профильным ведомствам отслеживать ценовую динамику на нефтехимическую продукцию, продовольствие и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ую продукцию, а также разработать меры по стабилизации цен. Поставки ключевых товаров остаются относительно стабильными. Удовлетворяется 80% потребностей в нефти и 90% — в нафте. Однако расслабляться рано. Необходимо диверсифицировать источники импорта и обеспечива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объёмы поставок, - добавил Ким Мин Сок. Он также призвал правительство искать NONGSHIM наращивает присутствие на мировых рынках

NONGSHIM наращивает присутствие на мировых рынках

Совокупная выручка от продаж лапши быстрого приготовления Shin Ramyun превысила к концу прошлого года 20 трлн вон (13 млрд 420 млн долларов), а общий объём продаж составил 42,5 млрд упаковок.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а 13 мая компания-производитель NONGSHIM, которая в этом году отмечает 40-летие бренда Shin Ramyun, который с 1991 он стабильно удерживает первое место на южнокорейском рынке лапши быстрого приготовления. Около 40% совокупной выручки компании обеспечивают зарубежные рынки, прежде всего, Северная Америка, Китай и Япония. В июне компания планирует открыть филиал в России NONGSHIM Rus LLC. В прошлом году Россия импортировала лапшу быстрого приготовления на сумму 52 млн долларов, что на 58% в больше, чем годом ранее.

По улицам Кванчжу будут курсировать беспилотные автомобили

Город Кванчжу, расположенный на территории провинции Чолла-Намдо, получит статус зоны апробации беспилот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200 автономных автомобилей будут курсировать по городу, отработывая технологии управления в разных условиях — на переулках, эстакадах, в тоннелях и на перекрёстках. Согласно плану министерства сухопутных территорий и транспорта, опубликованному 13 мая, испытания начнутся в новых районах и на городских окраинах с невысокой интенсивностью движения, а впоследствии охватят исторический центр и плотно застроенные кварталы. Накопление данных о вождении и обучение систем — ключевая цель проекта. В нём примут участие три компании: Hyundai Motor, Autonomous a2z и RideFlux. К работе будут привлечены более пятисот специалистов, включая водителей-испытателей, диспетчеров и техническ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РК лидирует по темпам роста использования генеративного ИИ

Согласно докладу о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и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ИИ), опубликованному аналитическим центром Microsoft AI Economy Institute, уровень использования генеративного ИИ в РК в первом квартале текущего года составил 37,1%. Это на 6,4% больше, чем в предыдущем квартале, и самый высокий рост среди всех исследуемых рынков. В результате РК поднялась в мировом рейтинге с 18-го на 16-е место. Южнокорейский рост назван в докладе «показательным примером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ИИ по всей Азии». 12 из 15-ти наиболее быстро растущих рынков находятся в Азии, а число пользователей ИИ на этих рынках выросло более чем на 25%. Среди них РК показала наибольший прирост пользователей — 43%. Далее следуют Таиланд — 36% и Япония — 34%. Генеративный ИИ создаёт новый контент на основе анализа больших объёмов данных. Такие системы способны генерировать тексты, изображения, аудио или другие типы контента.

Фильм «Надежда» борется за главную награду Каннского фестиваля

12 мая на юге Франции открылся 79-й Каннски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кинофестиваль. Новая лента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режиссёра На Хон Чжина «Надежда» (Норе) борется за главную награду - Золотую пальмовую ветвь, а также призы за лучшую мужскую и женскую роли. Новая работа режиссёра Ён Сан Хо «Колония» приглашена во внеконкурсную секцию «Полуночные показы». Картина «Дора» (Dora) режиссёра Чон Чжу Ри с Ким До Ён и Андо Сакурой в главных ролях вошла в программу «Двухнедельник режиссёров». Таким образом, южнокорейский кинематограф в этом году широко представлен в различных секциях фестиваля. Мировая премьера фильма «Надежда» состоится 17 мая в Гранд-театре «Люмьер». На главную награду фестиваля претендуют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22 фильма. Среди главных претендентов на награды критики называют фильмы «Овца в коробке» Хирокадзу Корээды, «Горькое Рождество» Педро Альмодовара и «Фиор» Кристиана Мунджиу. Основное жюри возглавляет режиссёр Пак Чхан Ук. Представитель РК возглавил жюри Каннского кинофестиваля впервые в его истории.

RKI

Южная Корея приняла специальный закон о развитии Северного морского пути

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одобрило специальный закон, направленный на подготовку страны к активному использованию арктических морских маршрутов. Как сооб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морских дел и рыболовства, закон "О содействии использованию Северного морского пути и развитию связанных отраслей" был принят на пленарном заседании парламента 7 мая.

Документ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создание при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е специального Комитета по Северному морскому пути, разработку базовы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планов, подготовку профиль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а также межведомственную систему финансовой и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й поддержки проектов, связанных с арктической логистикой.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подчеркнули, что принятие закона позволит более системно реализовывать государ-

ственную стратегию по превращению Южной Кореи в "ведущую морскую державу эпохи Северного морского пути". Ожидается, что закон вступит в силу после завершения предусмотренных формальностей, скорее всего, это произойдет через полгода после одобрения закона президентом страны.

Отметим, что Сеул рассматривает развитие арктических маршрутов как один из долгосрочных факторов изменения мировой логистики и судоходства. Южнокорейские власти и бизнес уже несколько лет проявляют повышенный интерес к Северному морскому пути, который потенциально способен сократить время морских перевозок между Азией и Европой. Севморпуть включен в список приоритетных целей развития страны при нынешнем президенте РК Ли Чжэ Мёне.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В Южной Корее будут сажать в тюрьму за несанкционированный запуск дронов в КНДР

Парламент Южной Кореи принял поправки к Закону об авиацио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предусматривающие усиление наказания за несанкционированные полеты беспилотников и других сверхлегких летательных аппаратов в запретных для полетов зонах, включая районы у границы с КНДР. Теперь за подобные нарушения может грозить срок вплоть до тюремного заключения.

Как пояснили власти, изменения стали частью мер по предотвращению повторения инцидентов, связанных с проникновением гражданских беспилотников на территорию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Напомним, что в 2025 - начале 2026 года с территории Юга в КНДР четыре раза направлялись дроны. Пхеньян в итоге нашел обломки разбившихся на их территории южнокорейских БПЛА и пригрозил Сеулу жестким ответом, если тот продолжит подобную практику. В ходе проведенного расследования выяснилось, что беспилотники направляли двое гражданских, действовавших при поддержке военной разведки.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РК заявили, что не давали указаний производить такие запуски, министр объединения РК Чон Дон Ён принес извинения Пхеньяну, а президент Юга Ли Чжэ Мён выразил сожаление в связи с инцидентами. Замешанные в запусках дронов офицеры и гражданские задержаны, ведется следствие.

Как отмечают южнокорейские СМИ, новый закон распространяется не только на дроны, но и на все виды сверхлегких летательных аппаратов. По сути, новые правила запрещают под угрозой тюремного заключения также и направление воздушных шаров, что осложнит активистам заброску листовок и прочих материалов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с территории РК.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ъедин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риветствовало принятие поправок, заявив, что теперь создана "более мощная правовая база" для наказания за несанкционированное проникновение беспилотников в сторону КНДР из приграничных районов.

В ведомстве подчеркнули, что новые нормы позволят предотвращать аналогичные случаи и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иных средств. Министерство также заявило, что "должны быть искоренены действия, искусственно повышающие напряженность в воздушн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над Корейским полуостровом".

Сеул также дал понять, что рассматривает предотвращение подобных инцидентов как часть курса на снижение напряженности в отношениях с Пхеньяном. В министерстве сообщили, что власти продолжат работу над дополнительными мерами, включая пересмотр Закона о развитии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В Южной Корее робота приняли в буддийские монахи

В Сеуле в крупнейшем буддийском храме страны Чогеса прошла необычная церемония: гуманоидный робот впервые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в традиционном обряде принятия буддийских обетов и стал монахом. Событие состоялось накануне празднования дня рождения Будды и сразу привлекло внимание как верующих, так и специалистов по технологиям.

Как сообщают местные СМИ, робот ростом около 1,3 метра на церемонии посвящения был одет в традиционные серо-коричневые одежды ордена Чоге. Робот встал перед монахами, сложил руки и совершил поклоны, повторяя за ведущим церемонии слова обета.

Монахи задали роботу традиционные вопросы о готовности следовать учению Будды, на что тот отвечал утвердительно. При этом пять базовых буддийских обетов были адаптированы с учетом его природы. В частности, новый "железный монах" пообещал не причинять вред живым существам, не повреждать других роботов и предметы, следовать указаниям человека и не вступать с ним в споры, не вводит в заблуждение, а

также экономно расходовать энергию и избегать чрезмерной зарядки.

Согласно буддийской традиции, новый монах получил другое имя - его теперь зовут "Каби", что, по словам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ордена, связано с именем Сиддхартхи и корейским словом "милосердие".

В ордене Чоге отметили, что цель акции - показать возможность сосуществования традиционных религиозных ценностей и совреме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Там также подчеркнули, что при разработке адаптированных принципов учитывались рекомендации систем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Ожидается, что Каби примет участие в традиционном фестивале лотосовых фонарей, который пройдет в середине мая в Сеуле. При этом с ним будут еще три его собрата - роботы Сокча, Мохи и Ниса. Они, однако, пока еще не имеют статус монахов - они не проходили обряд посвящения и используются прежде всего в демонстрационных и культурных целях.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BTS привлекла в Мексике 150 тысяч фанатов

По сообщению продюсерского агентства BigHit Music, группа собрала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150 тысяч фанатов на концертах мирового тура ARIRANG, прошедших 7, 9 и 10 мая в Мексике. Это было первое сольное выступление BTS в Мексике с июля 2015 года. Билеты на все три шоу были раскуплены сразу после начала продаж. Во время выступлений участники BTS уделили внимание мексиканским поклонникам, органично включив элементы местной культуры в программу шоу. Артисты общались с публикой на испанском языке и упоминали мексиканские закуски, что вызвало

восторженную реакцию фанатов. Торгово-промышленная палата Мехико прогнозирует, что концерты принесут экономический эффект в размере 107,5 млн долларов за счёт продажи билетов на концерты, авиабилетов, бронирования гостиничных номеров и продаж в местных торговых районах. 16, 17 и 19 мая BTS дадут концерты в американском Стэнфорде, 23, 24, 27 и 28 мая в Лас-Вегасе. Затем группа вернется на родину и 12-13 июня встретится с поклонниками в Пусане. Концерты приурочены к 13-й годовщине дебюта BTS.

KBS World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проспекта Мира в северной част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завершат к началу сентября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оинспектировал ход второго этапа реконструкции одной из главных транспортных артерий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Ранее на объекте наблюдалось отставание от графика, однако подрядчик увеличил темпы работ.

Масштабный ремонт проспекта Мира продолжается на участке между улицами Пионерской и Украинской. Протяженность отрезка превышает 1200 метров. Во время работ дорогу расширят до четырех полос, а также обустроят еще одну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полосу для обществен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 Эт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большая и серьезная работа. Возводят новый мост, переключают коммуникации, проезжую часть расширяют до четырех полос. Были определенные риски, что объект не будет сдан вовремя. Однако сейчас проводится работа над их устранением. Мы выслушали доклады специалистов — работы удалось синхронизировать и теперь строительство идет в плановом режиме,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ейчас на объекте занимаются переустройством инженерных сетей. Параллельно идет устройство ливневой канализации и основания дорожной одежды. Для моста с обеих сторон реки Уюновки забивают сваи. Земляные работы выполнены на 80 %.

— Проспект Мира — одна из ключевых транспортных артерий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Масштабный ремонт поделен на два этапа. Ранее подряд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талкивалась с трудностями в соблюдении сроков и темпов выполнения работ. Однако благодаря совместным усилиям и поддержк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егиона ситуация была стабилизирована.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ремонт ведется в плановом режиме. Ожидается, что к сентябрю он будет завершен, — подчеркнул мэр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ергей Нададин.

Строители вынесли все коммуникации, мешавшие забивке свай. Сейчас эти работы ведутся с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сторон моста. Сроки по инженерным сетям сдвинули с августа на июль, чтобы последний месяц лета посвятить асфальтированию и благоустройству.

— По контракту мост завершаем в июле, а в августе сдаем весь объект. На площадке задействовано около 40 человек и 25 единиц техники, — рассказа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одряд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Кирилл Рогозин.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проспекта Мира ведется при поддержке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для жизн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был завершен первый этап работ на участке от Сахалинской до Пионерской. Тогда построили новый мост через реку Рогатку и уложили асфальтобетонное покрытие.

В Холмском районе продолжается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по нацпроекту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для жизни»

В Холмском районе с 2019 года благоустроено 10 общественных территорий, две из них — победители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курса лучших проектов создания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подрядчики уже приступили к благоустройству 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остранств, выбранных холмчанами в ходе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голосования, проводимого ежегодно по федеральной программе «Формирование комфортной среды», включенной по реш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в состав нацпроекта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для жизни».

Холмский район стал одним из тех, где жители приняли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голосовании, поэтому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благоустроить две территории. На улице Школьной, от дома №60 до дома №64, появится современная аллея — с зеленой зоной, скамейками и освещением. Она свяжет тротуаром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ую часть города с жилыми районами на юго-востоке. По улице Советской появится небольшой уютный сквер с красивой световой инсталляцией, удобными парковыми диванами, благоустроенной пешеходной зоной. Территория разместится вблизи автовокзала.

— Национальный проект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для жизни» уже показал себя как действенный инструмент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За время его действия люди воочию убедились: в селах и городах становится комфортнее. Поэтому работа будет продолжена, — отметил министр ЖК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митрий Аристархов.

Благоустроенные ранее территории пользуются популярностью у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города. В частности, на выходных и в теплые дни холмчане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проводят время в экологическом парке «Зеленая гавань», который органично вписался в распадку у горы Татарки и быстро стал точкой притяжения. Для отдыхающих предложили туристические маршруты, оборудовали лыжную трассу, построили памп-трек. Всё сделано с уважением к природе — парк не вступает в конфликт с ландшафтом, а дополняет его. Для Холмска это новый, очень достойный стандарт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 Парк получился прекрасным. Задумка отличная. Я приезжаю гулять в Зеленую гавань не первый раз, хотя живу в селе Правда. Хочется, чтобы его продолжили развивать. Например, обустроили велосипедные дорожки, — поделилась впечатлениями Любовь Пономарева.

— Я не была здесь 4 года. Преображение колоссальное. Теперь здесь можно гулять круглогодично.

Здорово, что разбили на зоны: дети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занимаются своими делами в зоне для активного отдыха, а мы, кто приехал просто погулять и пообщаться, наслаждаемся лесом, природой в зоне для пешеходного прогулка, — подчеркнула жительница Холмска Надежда Бурдуковская.

В прошлом году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выбрали 28 территорий, которые будут благоустроены в 2026 году. В южных районах Сахалина уже приступили к работам.

Все желающие могу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новом сезоне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онлайн-голосования, которое проходит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и продлится до 12 июня. Отдать свой голос за понравившийся сквер или набережную можно на платформе zagorodsreda.gosuslugi.ru или обратиться к волонтеру.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голосовании может любой желающий старше 14 лет. Победителем в каждом районе будет признан объект, набравший наибольшее количество голосов.

За время действия нацпроектов «Жилье и городская среда» и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для жизн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еобразили свыше 200 общественных территорий, из них 28 — в 2025 году.

Школьники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едставляют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на Всероссийском профориентационном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м конкурсе «Инженерные кадры России»

Группа учащихся 3-5 классов школы № 31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инимает участие во Всероссийском профориентационном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м конкурсе с международным участием «Инженерные кадры России» в Челябинске. Юные изобретатели представили свой уникальный проект по вторичному использованию упаковочного картона, его переработке в топливные брикеты. Опытный образец установки они собрали в «Кванториуме» при школе из деталей конструктора.

Осенью прошлого года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Белик встретился с педагогическим коллективом новой школы № 25, открытой в жилом комплексе «Горизонт». Одна из участниц мероприятия обратилась с просьбой: оказать финансовую помощь победителям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борочного этапа конкурса «Инженерные кадры России» для поездки на мероприятие федерального уровня. Алексей Белик отреагировал: деньги для детей найдем.

Участникам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этапа конкурса стали почти 70 команд из семи районов области. Первое место завоевали ученики школы № 31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Опытный образец своей установки по переработке картона в топливные брикеты они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Алексею Белику.

— В России по инициативе Президента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реализуется национальный проект «Экологическое благополучие». Он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в частности, формирование экономики замкнутого цикла, системы обращения с твердыми коммунальными отходами. И очень важно, что к этой работе приобщаются и школьники. Они создали проект установки, способной превратить мусор в новый ресурс, дать отходам новую жизнь. Это наглядный пример того, как наша работа по развитию детского технического творчества приносит плоды, воспитывает людей, которые в дальнейшем смогут на практике решать непростые инженерные задачи, в том числе и связанные с защитой природы. Поэтому мы будем всячески поддерживать интерес подрастающего поколения к технике, точным наукам и высоким технологиям, создавать все условия, чтобы наши дети и подростки могли получать новые знания и навыки, — сказал Алексей Белик.

Свой проект школьники разработали после консультаций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по обращению с отходами. Проблема упаковочного картона дл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ействительно, является серьезной. На острова поступает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товаров и грузов в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й таре. После этого картон следует отправлять на материк для вторичной переработки.

Однако возникает несколько проблем. В частности, перерабатывающие предприятия принимают картон только в незагрязненном состоянии. Кроме того, велики транспортные расходы. Поэтому специалисты рекомендовали юным изобретателям найти возможность для вторичной переработки картона на месте. В итоге школьники спроектировали автоматизированную линию, которая перерабатывает тару в топливные брикеты. Действующая модель помещается на обычной школьной парте.

— Сначала сырье поступает в измельчитель. Оттуда оно по конвейеру направляется в смеситель. Здесь происходит смешивание с парафином и опилками. Затем материал прессуется, из него формируются топливные брикеты. Готовые брикеты механизм пресса выталкивает на транспортировочную тележку, которая увозит продукцию на склад, — рассказал капитан команды юных разработчиков, ученик третьего класса Вячеслав Ташуян.

После майских праздников команда изобретателей из школы № 31 вылетела в Челябинск для участия во Всероссийском профориентационном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м

конкурсе с международным участием «Инженерные кадры России».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йдет 14-15 мая. Алексей Белик пожелал юным сахалинцам успехов.

Более 360 несанкционированных свалок ликвидировали на юге Сахалин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должается работа по поиску и ликвидации несанкционированных свалок. В этом году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беспилотный мониторинг территорий начался раньше — с конца марта.

На заседании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требовал полностью очистить территории от мусора на юге острова до начала лета. В северных районах, где обследования проведут в течение мая, все обнаруженные свалки должны ликвидировать до конца июня.

— Мы поставили перед собой ответственную цель — сделать острова чистыми. Ежегодно мы привлекаем беспилотную авиацию к поиску свалок и постепенному расширению территории обследования. К мониторингу в районах приступают, как только сходит снег. Каждое скопление мусора муниципалитеты должны убрать в течение недели с момента обнаружения. Эта работа приносит результаты. Когда мы только начинали облеты, на островах в сезон обнаруживали до 2-3 тысяч незаконных свалок.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количество таких объектов сократилось в три раза,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нижается не только число свалок, но и объемы отходов.

— Раньше мы выявляли большие свалки, накопленные годами. Сейчас свалкой нередко называют, к примеру, брошенный остов машины. Масштаб поменялся. В основном мы находим стихийные свалки, а системных скоплений мусора уже нет,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Римша.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с помощью дронов обнаружено 517 скоплений отходов, 362 свалки уже ликвидировано. С задачей по уборке полностью справились Южно-Сахалинск, Анивский, Макаровский и Корсаковский районы.

В Аниве заработали современные очистные сооружения

Во время рабочей поездки в Анивский район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оинспектировал работу современных очистных сооружений. Сегодня на важном коммунальном объекте стартовал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й процесс.

По поруч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к 2036 году субъектам страны необходимо в два раза снизить объемы неочищенных сточных вод, сбрасываемых в водные объекты. Для решения этой задачи в Анивском районе стартовало строительство сразу нескольких коммунальных объектов. В конце 2025 года были введены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очистные сооружения в селе Таранай. Аналогичные сооружения построены в Аниве и возводятся в Новотроицком.

— Мы вводим комплекс очистных сооружений, которые предотвратят попадание загрязненных стоков в Анивский залив. В перспективе на его побережье появится курортная зона с чистой водой. Это важный вклад в экологическое благополучие и забота о наших жителях, — отметил глава регио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очистных сооружений в Аниве предусмотрено концессионным соглашением, заключенным в декабре 2023 года меж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министрацией Анивского района и группой компаний «Росводоканал». Объект обеспечит механическую и биологическую очистку стоков. После ввода сооружений значительно уменьшится мутность воды, будет полностью исключено попадание в воду тяжелых металлов, в 40 раз сократится сброс аммонийного азота — вещества, негативно влияющего на фауну рек.

Новый объект коммуналь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будет обрабатывать не только канализационные стоки. Там предусмотрена современная сливная станция, позволяющая принимать жидкие бытовые отходы с домовладений, не подключенных к централизованной системе водоотведения.

— Сегодня у нас появилась возможность обеспечить прием стоков в том числе промышлен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а также ассенизаторских машин,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операционный директор группы компаний «Росводоканал» Андрей Броцман.

Во время поездки в район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также посетил станцию регулировки давления на магистральной водопроводной сети сел Троицкого и Новотроицкого. Жители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в частности, новостроек, сообщали об ограниченном напоре воды в периоды пиковой нагрузки. На водозаборе в Троицком в конц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обустроена дополнительная скважина. Для нормализации водоснабжения был установлен редуктор давления.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едется работа по организации оптимального режима водоснабжения. В перспективе для бесперебойной подачи воды в Троицком планируют построи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резервуары чистой воды.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동포 민원 끝까지 챙긴다"...제2차 민원 조사 실시

분과위원회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추가 해결 추진

"동포 민원 제로" 목표로 후속 조치 이어가...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5월 8일(금)부터 6월 8일(월)까지 전 세계 동포사회 민원·건의사항 2차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차 조사에 이어 전 세계 재외공관을 통해 진행된다. 공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은 현장에서 바로 조치하도록 했다.

앞서 재외동포청은 지난 1월 대통령 주재 재중한국민간담회 후속 조치로 1차 민원 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188개 재외공관과 국내 동포단체를 통해 1,438건의 민원과 건

의사항이 접수됐으며, 34개 관계 부처 검토를 거쳐 4월 중순 민원인에게 1차 답변을 전달했다.

현재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실무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해결되지 않은 민원에 대한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6개 분과위원회 : ①법·제도, ②차세대동포·교육, ③역사적 특수동포, ④동포서비스, ⑤동포단체지원, ⑥국내귀환동포

5월 중순 6개 분과위원회 회의 종료 후, 동포사회의 핵심 민원에 대해서는 청와대 주도의 범부처 TF를 가

동하여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진행된 분과위원회 개최 결과, 공관을 통한 △국제운전면허증 신청 및 수령, △운전면허증(1종보통) 갱신 등의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김경협 청장은 "동포들이 해외 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과 어려움을 끝까지 챙기겠다."며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온·오프라인 소통을 통해 '동포민원 제로'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 제공)

"세계 한상 연결하는 첫 총회 이끈다"... 세계한상대회 총회 초대 의장에 하경서 회장 임명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5.11(월) 인천 연수구 재외동포청에서 세계한상대회 총회 초대 의장으로 선임된 하경서 엘살바도르 카이사(CAISA) 그룹 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세계한상대회 : 한민족 혈통을 가진 재외동포 경제단체들이 참석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민족 최대 비즈니스 행사

이번 임명은 지난 4월 29일 열린 제60차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하경서 회장을 올해 대회의 총회 의장으로 선임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세계한상대회에서는 처음으로 민간 주도 체계로 운영되며, 이에 따라 전 세계 한상들이 참여하는 '세계한상총회'도 새롭게 출범한다.

하경서 회장은 초대 총회 의장으로서 올해 총회를 주재하고, 글로벌 한상 네트워크의 협력 방향과 미래 비전을 함께 논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 (참고) 총회 의장은 1년 임기로 당해 대회 프로그램인 총회를 주

재하는 등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임무를 수행하며, 2년 임기의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장(現 황병구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장, 26.2.25 선출)은 의결 기구인 운영위원회의 대표로서 대회 운영 및 한상 네트워크 전반을 지휘 및 관리

총회는 오는 9월 29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며, 제24차 세계한상대회 기간(9월 28일~30일) 중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세계 한상들을 대상으로 한상 네트워크의 미래 비전과 주요 안건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신임 하경서 의장은 중남미 엘살바도르에서 '카이사 그룹'을 일군 대표적인 한상 기업인이다.

특히 차세대 재외동포 장학사업과 동포사회 지원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며 나눔을 실천해 온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하경서 의장은 "민간 중심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세계한상대회의 첫 총회 의장을 맡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



다."며, "전 세계 한상의 지혜를 모아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한상 경제 네트워크가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회 규정에 따라 임명장을 수여한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이번 의장 임명은 세계한상대회가 민간 중심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로 한 단계 도약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전 세계 한상들이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세계한상대회는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다.

(재외동포청 제공)

"해외에 살아도 국민연금 상담 쉽게" 재외동포 국민연금 상담 문턱 낮춘다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5월 8일(금)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과 재외동포의 국민연금 상담과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이날 서울 광화문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에서 열렸다.

재외동포청은 2023년 6월 5일 출범 이후 국적·병역·국민연금 등 재외동포들이 자주 문의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상담 분야 확대와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민원서비스 지원 방안을 강화해왔다.

그동안 많은 재외동포들은 해외 이주 과정에서 국민연금 납부가 중단되거나 해외 거주국 연금제도를 잘 알지 못해 연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한국과 체류국 양쪽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절차로 신청해야 하는지 몰라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재외동포가 연금 정보를 더 쉽게 안내받고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을 강화할 계

획이다.

주요 협력 내용은 ▲재외동포 권익 및 노후소득 보장 관련된 신규 사업 발굴 및 상호 협조 ▲재외동포 권익과 노후소득 보장 목적의 정보 취득과 상호 제공에 대한 협력 ▲재외동포 권익 보호 사업에 대한 양 기관의 온라인, 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 협력 ▲재외동포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국민연금공단 대국민 정보시스템 이용 협조 ▲사회보장협정 관련 심층 상담 제공 등이다.

김성주 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국가가 재외동포들의 노후 삶을 끝까지 살피고 있다는 신뢰를 공고히 하여 국격을 높이고 동포들의 애국심을 고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협 청장은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 중추기관인 국민연금공단과 협력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재외동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 제공)

재외동포 금융위임장 전자화... 국제우편 없이 바로 처리

앞으로 해외에 있는 재외동포가 국내 은행 업무를 대리인에게 맡길 때 위임장을 직접 국제우편으로 보내온 불편이 해소될 예정이다.

재외동포청,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은 5월 13일(수) 8개 은행과 함께 재외동포의 국내 금융거래 편의 증진 협력을 위해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해외 주재 우리 동포들이 국내 은행업무를 위해 재외공관에서 인증받은 금융위임장을 국내 대리인에게 국제우편으로 보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며칠에서 몇 주까지 시간이 걸리고, 분실이나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있었다.

앞으로는 디지털 영사 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를 통해 재외공관에서 인증받은 위임장이 전자문서로 바로 은행에 전달된다.

이 서비스는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가 국내 금융거래(대면)를 목적으로 재외공관에서 인증받은 서면 금융위임장을 전자화하고, 해당 동포가 지정하는 은행에 전자적으로 전달까지 해주는 서비스이다.

이를 통해 민원인이 별도의 우편 발송을 하지 않아도, 즉시 국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또한,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위임장 진위여부를 은행이 직접 확인해 위·변조 위

험도 줄어든다.

금번 서비스에는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우정사업본부 등 총 8개 금융회사 등이 우선적으로 참여한다. 추후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을 통한 금융거래 수요가 확대되는 경우, 참여 은행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는 인프라 구축, 전산개발 등을 거쳐 '26년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김경협 재외동포청 청장은 "이제 재외동포들이 해외에서도 국내 금융 업무를 더 빠르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동포들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민원 서비스를 계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번 서비스를 "국민주권정부의 차별 없는 포용적 동포 정책을 금융분야에서 실현하는 뜻깊은 출발점"이라고 평가하며, "재외동포 지원 등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금융권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채병덕 금융결제원 원장은 "지급결제 중추기관으로서 금융결제원은 재외동포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하여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재외동포청 제공)

"전 세계 동포 이야기 1억 번 넘게 이어졌다" 유튜브채널 '동포ON' 누적 조회 수 1억 회 돌파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공식 유튜브 채널 '동포ON'의 누적 조회 수가 1억 회를 돌파(5월 4일)했다고 밝혔다. 총 조회 수 1억회는 2025년 12월 9일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6년 5개월 만에 이뤄낸 성과다.

'동포ON'은 전 세계 재외동포의 삶과 이야기, 현지 소식, 정책 정보 등을 영상 콘텐츠로 전달하는 재외동포청의 온라인 소통 채널이다.

특히 단순한 기관 홍보를 넘어, 세계 각지 동포들의 목소리와 경험을 직접 담아내며 재외동포 사회와 국내를 연결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동포ON'에서는 재외동포들의 삶을 조명하는 다큐멘터리 콘텐츠를 비롯해, 재외선거 제도 개선 캠페인, 국내 귀환동포 정착 이야기, 차세대 동포 콘텐츠, 현지 한인 사회 소식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여왔다.

특히 지난달 개편 이후로는 국무회의와 동포간담회를 편성해 정책 전달 기능을 강화했고, 생방송 '정책톡톡 소통톡톡'을 신설해 사전 질문과 실시간 채팅으로 재외동포

와의 소통 폭을 넓혔다.

또 "불편한 재외선거 바뀌주세요" 캠페인 영상이 38만 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하며 공감을 얻었고, 해외에서 투표하기 위해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재외국민들의 현실을 알리며 재외선거 제도 개선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재외동포청은 앞으로 '동포ON'을 단순 영상 채널을 넘어 재외동포와 정부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외 한인방송 및 현지 콘텐츠 협력을 확대하고, 주요 정책과 현안을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는 라이브 콘텐츠와 참여형 콘텐츠도 강화할 예정이다.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동포들의 모국에 대한 소식과 소통 창구의 필요성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조회 수 1억 회를 넘어선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세계 곳곳의 동포 이야기와 마음이 서로 이어질 수 있는 플랫폼이 되도록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 제공)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사할린에서 단일 벽 그물에 걸린 쇠돌고래 구조

해양구조대 자원봉사자들이 구조된 쇠돌고래에게 '가브 류샤'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쇠돌고래가 사할린 아나와 해안에 놓인 단일 벽 그물에 걸려 있는 것을 코르사코브 주민인 드미트리가 처음 발견했다. 쇠돌고래의 꼬리지느러미가 그물에 걸린 것을 보고 그는 즉시 구조에 나섰다 '즈웨즈다 포로나이스크' 맥스(MAX)채널이 전했다.

드미트리는 몇 시간이나 차가운 얼음물 속에 머물면서 구조를 요청한 '해양의 친구들'단체의 전문가들이 도착하길 기다렸다. 마침내 구조대가 도착해 쇠돌고래를 그물에서 풀어 줄 수 있었다. 이후 쇠돌고래가 한동안 구조대와 나란히 헤엄치자 그들은 배를 이용해 위험한 그물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바다로 조심스럽게 쇠돌고래를 인도했다. 쇠돌고래가 바다로 나가 사할린 해안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해양의 친구들' 구조대는 작전을 종료했다.

На Сахалине спасли морскую свинью, запутавшуюся в жаберной сети

Спасенного обитателя моря волонтеры назвали Гаврюшей. Морская свинья попала в жаберную сеть в Анивском заливе на Сахалине. Первым животное заметил житель Корсакова Дмитрий. Китообразное запуталось хвостовым плавником в снастях, и мужчина сразу бросился на помощь. Об итогах спасательной операции сообщили в МАХ-канале «Звезда Поронайска». Несколько часов корсаковец Дмитрий стоял в ледяной воде залива и ждал приезда специалистов из группы «Друзья океана». Когда волонтеры добрались до места, они освободили животное.

После этого морская свинья некоторое время плавала рядом со спасателями. Тогда ее аккуратно со-

проводили на лодке на большую глубину, подальше от опасных снастей. Убедившись, что животное уверенно уходит в море и не возвращается к берегу Сахалина, команда «Друзья океана» завершила операцию.

세웨로쿠릴스크 주민 차고에서 2차세계대전 당시 일본 수류탄과 기뢰 발견

세웨로쿠릴스크 법원은 이 지역 주민이 과거 군수품을 소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조사 자료에 따르면 파라무쉬르섬의 주민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탄약을 발견했는데 발견한 군수품 중에 일본 대공 기뢰 표적 탐지기, 원격조종 튜브, 고풍탄, 일본제 수류탄 2개가 있었다.

이 남성은 이런 류의 군수품을 소지하는 것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발견한 군수품을 모두 자신의 차고로 옮겼다. 경찰이 긴급수색 조치 중 위험한 군수품을 발견하고는 즉시 압수했다. 지역 법원은 범법 행위를 한 주민에게 2년 보호관찰과 3년 3개월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동시에 벌금으로 2만 루블리를 부과, 탄약 운반에 사용된 오토바이(VENTA)를 압수했다. 검찰은 범인 판결이 법적 절차와 요건 확정에 따라 법적 효력을 아직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В гараже жителя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а нашли японские гранаты и мины времен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е суд определил меру наказания для местного жителя, уличенного в хранении военных арсеналов минувших лет.

Согласно материалам дела, у жителя острова Парамушир обнаружили боеприпасы времен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Среди находок — датчик цели от японской противодесантной мины, дистанционная трубка, взрыватель от артиллерийского снаряда и две гранаты японск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Осознавая незаконность владения подобными предметами, мужчина все же перевез их в свой гараж. П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ые органы в ходе оперативно-розыск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обнаружили и изъяли опасные артефакты.

Суд принял решение назначить гражданину условное наказание — три года и три месяца с испытательным сроком в два года. Помимо этого осужденный обязан выплатить штраф в размере 20 тысяч рублей, а его мопед VENTA, который использовался для транспортировки боеприпасов, будет конфискован.

В прокуратуре отметили, что вердикт суда пока не приобрел законной силы.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열린 <승리의 컵> 수영대회에 594명 참가

5월 9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승리의 컵> 지역 수영대회가 개최된 가운데 아나와, 코르사코브, 홉스크, 오하, 노글리키, 유즈노-쿠릴스크, 유즈노사할린스크 등지에서 594명의 선수들이 참가했다. 이번 수영대회는 수영 종목 스포츠센터의 수영장에서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 50m, 100m, 200m 자유형, 평영, 배영 종목에 출전했고, 점영과 개인혼영 종목에서도 경기가 치러졌다.

대회 개막식에서 사할린주 스포츠부 차관 스타니스라브 튜린과 특수군사작전 참전용사인 강원찬이 선수들에게 환영사를 전했다.

«Кубок Победы» по плаванию объединил 594 спортсмен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9 мая прошли региональ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плаванию «Кубок Победы». Турнир собрал 594 спортсмена из Анивы, Корсакова, Холмска, Охи, Ноглик, Южно-Курильска и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Состязания приняли в бассейне Центра водных видов спорта. Участники выступали на дистанциях 50, 100 и 200 метров вольным стилем, брассом и на спине. Также пловцы соревновались в баттерфляе и комплексном плавании. На открытии спортсменов приветствовали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танислав Тюрин и ветеран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Кан Вон Чан.

(러시아 및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Началась подписка на 2-ое полугодие 2026 г.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6 месяцев — 885 руб. 96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1+2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Реклама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p>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p>				<p>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p>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 (주필) 배 워토리아</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3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